

## 삼보사찰 천리순례 내일 입재..18일간 대장정

윤호섭 기자 승인 2021.09.30 07:30 댓글 0



(앵커)

종교 위기의 시대, 불교중흥을 발원하며 시작된 상월결사의 세 번째 대작불사인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내일 시작됩니다. 97명의 순례단원이 18일간 400여km를 걸어서 순례하는 대장정인데요. 이번 순례의 의미와 일정을 짚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각각의 사찰에 담은 삼보종찰은 한국불교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반도에서 불교가 번성한 고려후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 지눌부터 국사 칭호를 받은 15명의 고승을 배출했습니다.

여기에 조선 초기, 송광사를 중창한 고봉 국사까지 16국사를 배출해 명실상부한 승보종찰로 거듭났습니다.

###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2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1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09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08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07일 전체뉴스

### 인기뉴스

-  나누며하나되기, 4천만 원 상당 마스크 후원받아
-  관음중 부산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당해
-  진관사 찾은 펭수 "내면 진심 깨달아"
-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  해동용궁사,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
- 수덕사승가대학장 역임 밀양 무이정사 주지 무이거부스님 입적
-  "종교화합 저해 가톨릭 성지순례길 중단해야"

또한 부처님의 묘법이 담긴 팔만대장경을 지키는 해인사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는 각각 범보종찰과 불보종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근간이 되는 삼보는 모든 불자들의 귀의처로서 천리순례의 행선지가 삼보사찰이 된 이유입니다.

자승스님 / 상월선원 회주(지난달 순례 최종회의 중)

(삼보사찰이 얼마나 중요하고 범보사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삼보에 대한 존중과 존귀함을 사부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삼보사찰을 순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지난해 펼쳐진 자비순례보다 100km정도 코스가 짧아졌지만, 해발 1000m에 달하는 성삼재와 시암재 등 고갯길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순례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삼보사찰을 비롯해 화엄사, 실상사, 표충사 등 내로라하는 국내 전통사찰을 다수 거칠 수 있어 신심증장의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북과 서울에 이어 올해 호남과 영남을 잇는 지역 화합의 메시지도 담아낼 예정이어서 불교의 대사회 역할 확대에 힘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와 포교정책 워크숍을 함께하며 비대면 시대 선진적인 포교 방법과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습니다.

호산스님 /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도감(지난 5월 사전답사 중)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서 사부대중의 삼보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는 인연을 짓게 하는데 의미가 있고, 옛 선사 조사 스님들이 걸어온 구도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순례가 되리라 고...)

두 번에 걸친 국내 순례가 앞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지인 인도 순례를 잇는 마중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사부대중의 이목이 쏠립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

좋아요 0개

윤호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기가사

진관사 찾은 펭수 "내면 진심 깨달아"

(삼보사찰 천리순례 4) 백두대간 무사히 넘어

(나랏말싸미 7) 한글날과 신미대사

봉은사 개산 1227주년 역대조사 차례재 봉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5) 공동체 정신 배워



기사 댓글 0개

전체 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계호 : BTN불교티비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본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CS